

제주방언 사전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오 창 명*

目 次

1. 서론 : 사전의 개념
2. 기존의 어휘집 및 방언사전
3. 제주도방언 사전에서 주의해야 할 것
4. 결론

1. 서론 - 사전의 개념

일반적으로 '단어를 모아 일정한 순서(알파벳순 또는 가나다순 등)로 배열하고 그것에 대해 해설한 책'을 '사전'이라고 한다. 사전(辭典)은 단어의 발음, 품사, 의미, 용법, 어원, 표기법 등을 해설한 책이고, 사전(事典)은 사상(事象)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이러한 구별이 엄밀한 것은 아니지만, 이론상으로는 구별이 가능하다. 즉 언어의 의의(意義)를 하나의 심상(心象)으로 본다면 그 심상을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는 일은 사전(辭典) 본래의 사명이며, 어의(語義)의 분석이나 용법보다도 사상(事象) 그 자체에 관한 지식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전(事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본래 사전에서는 언어의 역사와 어의의 변천이 철저히 추구되는 것이다. 한편 한자를 부수와 획수에 따라 배열하고 해설한 책을 옥편(玉篇) 또는 자전(字典)이라 한다.

사전은 편찬 목적과 구체적인 용도(배열의 기준-문자사전과 발음사전, 의미사전 등 ; 색인 및 설명어-국어사전과 대역사전 등 ; 수록어의 성격-보통사전과 특수사

* 제주대 강사

전, 용량-대사전, 중사전, 소사전 등) 등의 관계로 모든 사항이 망라될 수는 없고, 또 국어는 어원에 대한 구명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여 제법 큰 사전이라 할지라도 어원의 설명이 완벽하지 못하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견지에서 특정한 언어(때로는 복수의 언어)의 단어들을 수집, 정리, 배열하여 표기법, 발음, 의미, 용법 등의 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적 산물로서 여러 가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출판물, 곧 어휘 연구의 최종적 산물'이 사전(辭典)이라는 정의를 받아들여, 국어의 특수사전 또는 보조사전이라 할 수 있는 '제주방언사전'의 국어학적인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기존의 제주방언사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제주방언사전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2. 기존의 어휘집 및 방언 사전

제주방언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먼저 조사·수집·연구되었다.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는 1944(下)에서 제주도일원에 걸친 방언 조사에는 600~700여 단어표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하여 도내 각지(제주, 성산, 정의, 서귀, 대정 등 5지점)에 있어서의 방언을 기입하였다고 한다. 표기는 인쇄상의 어려움, 독자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약속에 따라 로마자로 전사하고 있다.

가령 표준어 '닭'(鷄)에 대해서 /tok/(제주, 성산, 서귀, 대정)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고노 로쿠우로(河野六郎)는 1945에서 표제어 50어에 대해 방언형, 지리적 분포 등을 명시하였다. 역시 제주도는 제주, 대정, 서귀포, 성산 등 4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령 '모래'(沙)에 대해서 /mollE/(제주, 대정, 서귀포, 성산포)·/mosal/(제주, 대정, 서귀, 성산) 등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2.1 석주명의 『제주도방언집』(1947, 서울신문사출판부)

이 책은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2년여 동안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生藥)연구소 제주도시험장(토평)에 근무하면서, 제주도방언자료를 수집하여 1947년 6월에 탈고하여 그 해 12월에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의 '제1편 제주도방언집'에는

제주방언 사전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7,000여 개(총 7,012개)의 제주도방언에 표준어를 대응시켜 놓았다. 이 책은 가장 독특한 방언인 제주도방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간행한 최초의 방언자료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제주도방언에 아직도 남아있는 15세기의 ‘으’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몽고어 차용어를 비롯한 여러 특수어휘를 수록하였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높다. 특히, 생물학자만이 정확하게 채록할 수 있는 동물·식물 어휘를 많이 수록하였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비전문인으로서, 일제강점기 말기에 이만한 어휘를 수집해내고 출간한 것은 참으로 가상한 것이다. 굳이 국어학적으로 아쉬움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방언의 ‘으’는 비교적 온전하게 적었으나, ‘뭍[작쿨](쇠무릎)을 ‘뭍[마작쿨]로 잘못 적은 것들도 눈에 띈다. ‘괴(漢東里), 괴기(고기), 쇠[鐵] 등은 ‘괘, 쇠’ 등 ‘웨’로 적어야 할 것인데 ‘외’로 적고 있다. 그리고 대개 ‘ㅎ다[爲]는 ‘ㅎ다’로 적고 있는데, ‘해그네(해서), 해염수괘(하고 있지 않습니까)’가 보이는가 하면 ‘아명해도(암만 해도), 누렁해여지다>노랑해여지다(누래지다>노래지다)’ 등도 보여, ‘해’로 표기해야 할 것인데 ‘헤’로 표기한 것 등은 주의를 요한다.

2.2 박용후의 『제주방언연구:자료편』(1960·1988재판, 동원사)

이 책은 교편생활 중 10여 년 동안 수집한 어휘 11,000여 개를 수집하여 품사별, 의미분류별, 형태별로 자료를 나누어 1960년에 프린트판으로 발행한 것이다. 이 책은 1988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다시 인쇄본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어휘 분류에 있어 전통적인 분류어휘집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체언을 천문(天文), 지리(地理), 방위(方位) 등으로 표제항들을 단어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어휘의 개념(개개의 단어보다는 일정한 단어의 집합으로서 단어들을 고려)으로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¹⁾ 둘째는 이중모음 ‘으’(으든, 으드레, 으답, 으름, 으망지다, 으숫, 으기 쉬, 으기작다 등)를 문자로 처음 인정하여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승녕(1956)에서도 ‘여망지다(뚝뚝하다, 현명하다), 여섯, 여덟, 역ㅎ다(伶俐하다, 야무지다), 여석(奴, 男의 비칭)’의 ‘여’는 신경준이 주장(『訓民正音韻解』, 1780)한 ‘으’음과 같은 것이라고는 했으나, 문자로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1) 이러한 방법은 남영신(1987)의 『우리말 분류사전』, 박용수(1989)의 『우리말 갈래 사전』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모음 '외'가 실현되는지 의심스러운 어휘(쇠, 쇠고기적, 쇠막, 쇠얇배 등)를 등재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2.3 현평효의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1962·1985재판, 태학사)

이 책은 1956년 7월 13일부터 1958년 12월 29일까지 약 2년 반 동안 제주도를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특이한 어휘 약 2,000여 개와 표준어와 동계의 어휘 약 11,000여 개(총 어휘수 13,785개)를 가지고, 6, 70세를 전후한 노인 208명을 상대로 5차례(1차:노형,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흥, 태흥, 표선, 12개 지점, 2차~5차:1차의 5개 지점과 가시, 김녕 추가 등 7개 지점)에 걸쳐 조사·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전편(前編)은 방언 음성형(로마자 표기) 대 표준어, 후편(後編)은 표준어 대 방언형(한글 표기)이라는 정반대로 편집한 대역사전으로, 사전(辭典) 형태의 방언집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것이다. 그리고 음성을 전사해서 방언형을 표기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어휘의 분포 지점을 표시한, 사전식(辭典式) 어휘집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어학적으로 볼 때, 모음 'ㅛ'와 '으' 표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했고, 박용후와는 달리 이중모음 '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²⁾

2.4 제주방언연구회의 『제주어사전』(1995)

이 책은 현평효(1962·1985재판)를 근간으로 하여 재조사된 어휘와 어미, 조사, 관용 표현, 오름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다 진일보한 사전이다. 그러나 관공서와 계약한 책인 관계로 조사기간과 시간에 쫓겨 편집하여 간행하다 보니 아쉬움이 많은 책이 되어 버렸다. 어휘의 수가 빈약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가령 표준어 '삼촌(三寸)은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형태인 '삼촌'은 등재되지 않은 것, 표준어 '여러달'에 대응하는 방언은 '여러덜, 여러덜, 으라덜'로 실현되는데, 대표 표제어로 '여러덜'을 내세웠으나, '여러해'에 대응하는 방언은 '여러해, 으라해'('여러해'는 빠짐.)로 실현되는데 '여러해'를 표제어로 내세우는 등 대표 표제어 선정

2) 이승녕(1957)에서는 문자로서는 '외'를 쓰고 이것이 단모음 \emptyset 로 실현되지 않고 [we]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현평효는 [we]를 '웨'로 표기하고 있다.

제주방언 사전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에 약간의 혼란을 보이고 있는 것 등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방언자료집:IX. 제주도편』(1995)

이 책은 『한국방언조사질문지』(19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1,470항목을 대상으로 하여 북제주와 남제주를 조사·수집하고 표준어에 대응하는 방언형(한글 표기)과 음성형(로마자 표기)을 밝힌 것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제주도이고 제주도방언 음운론을 전공한 정승철 교수가 조사한 것이라는 데서, 음운론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다.

3. 제주도방언 사전에서 주의해야 할 것

3.1 어휘(語彙)의 문제

어휘의 경우 고유어든 한자어든,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든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리나는 대로만 적도록 한다면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어차피 문자를 만든 것이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한 약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쓰는 방법에 있어서도 약속을 정해서 쓰면 독서의 능률과 의미 파악에 훨씬 유용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정서법 혹은 맞춤법이라고 한다.

한글 맞춤법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방언의 경우도 ‘제주도방언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표준어와는 달리 제주도방언에서 ‘한 가지 의미의 말이 둘 이상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 그 모두를 표기 대상으로’ 삼아야 함도 당연하다.

인위적으로 <제주도방언 표기법> 따위를 만들어서 제주도방언 표기를 적자는 것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다. 소리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소리나는 대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표기법’이라 하면 안되고 ‘전사법’이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순전히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면 ‘전사법’이라 해야 하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전사법’이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표준어 ‘따뜻

하다, 따듯하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을 '뜨뜨하다, 뜨뜨뜨하다'로 적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 본다.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고 하더라도 위 '따듯하다, 따듯하다'에 대응하는 제주도 방언형을 적는 데도 제각각이었다.

석주명(1947)에서는 '뜨뜨뜨하다'로 적고 있고, 박용후(1960)에서는 '듯듯, 듯듯이, 듯듯하다, 듯듯, 듯듯이, 듯듯하다'로 적고 있다. 현평효(1960)에서는 '듯듯하다, 뜨듯하다, 뜨듯뜨하다'로 적고 있다.

중세어에서의 '듯드시>(따뜻이), 듯하다(다스하다)', 현대국어에서의 '따듯하다, 따듯하다, 뜨듯하다, 뜨듯하다'로 적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가칭 <제주도방언 표기법>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쓰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그래서 <제주어표기법 시안>(1986)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같이 '한 형태소 안의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뒤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하였다(ㄱ딱, 거꿀로, 뜨듯뜨하다 등). 이러한 것도 제주방언 표기법에 들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것을 굳이 넣지 않는다면 '한글맞춤법'에 준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방언을 현실적으로 표기할 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주도방언 표기법'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나온 제주도방언 사전류의 어휘는 방대하지 못하다. 대부분 짧은 기간에 이룩한 개인의 역작이어서 그럴 것이라고 본다. 적어도 이제는 많은 조사기간을 설정하고 많은 조사자를 투입하여 방대한 <제주도방언 사전>을 만들어낼 때도 되었다. 이러한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연구단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문화재 조사나 보수 유지에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이러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3.2 문법(文法)의 문제

지금까지의 제주도방언 사전류들은 대부분 어휘집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문법 어휘를 사전에 제대로 반영해내지 못했다. 그것은 아마도 연구결과가 많지 않았던 데 원인이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

석주명(1947)에서는 '가오랏수다/간오랏수다(갓다왔소이다), 알아먹나(알아뒀다), 조사먹다(쏘아먹다), 하영싯수다(만히 잇습니다)' 등과 같이 용언이나 용언의 활용형,

제주방언 사전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용언의 활용형으로 이루어진 구 등도 어휘로 등재했을 뿐, 문법형태소를 표제어로 실지는 못했다. 비전문가가 이만큼 이룬 작업에 만족해야 한다.

박용후(1960, 1988)에서는 '32. 토씨(助詞)', '33. 씨끝(語尾)', '씨가지(接辭)'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씨끝'의 경우 어말어미는 그런 대로 표제어로 내세웠으나, 선어말어미는 분리해서 표제어로 다루지 못했다. 다만 '35. 어귀·짧은 글(句·短文)' 등도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어서 오늘날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현평효(1962, 1985)에서는 어미를 표제어로 내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례도 수록하지 않았는데, 이의 증보판격인 『제주어사전』에서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를 분리해서 표제어로 내세웠다. 그러나 '-암ㅅ-'과 같은 선어말어미는 넣지 않았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에서는 'Ⅱ. 문법'항에서 '조사, 경어법, 시제, 사동·피동, 연결어미, 보조용언' 등을 설정하여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으나, 질문지의 성격상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지 못했다.

조사의 경우 강근보(1978), 강영봉(1981), 정운택(1983), 강정희(1984, 1988) 등이 있으므로, 이제는 효과적으로 정리해 낼 필요가 있다.

어미의 경우 김영돈(1956~57), 이승녕(1957), 박용후(1962), 현평효(1973, 1975), 현평효·김홍식·강근보(1974), 이남덕(1982), 정영진(1983), 홍종립(1991), 성낙수(1992), 정승철(1997) 등이 있으므로, 토론을 거쳐 정리해 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방언 사전류에는 접미사, 의존명사, 접두사 등에 대한 사전적 처리가 미흡했는데, 명사, 동사·형용사, 조사, 어미, 접두사 등과 함께 사전적인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문법형태소 몇 개만 살펴보자.

우선 '흡ㅅ'체의 종결어미 '-ㅅㅅ'이다. 이는 실제 [-ㅅㅅ]로 발음된다. 그런데 대부분 '-ㅅㅅ'로 쓰지 않고 '-ㅅㅅ'로 쓴다. 이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된소리되기 현상으로 보고 형태를 밝혀 적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배치되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었다. 상대존대 선어말어미의 문제인데, 정승철(1997:112-113)에서 '올암쑤광, 왓쑤광, 쫘쑤광'에 보이는 '-쑤-'는 모음 뒤에 쓰이는 '-(으)우-'의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고, 이전 시기에 '-수-'로 실현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쑤-'는 다른 사람의 경우 모두 '-수-'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쑤-'가 나타나는 환경이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이라는 것

이다. 곧 ‘ㅂ’ 뒤에 연결되는 ‘ㅅ’, ‘ㄹ’ 뒤에 연결되는 ‘ㅅ’인데, 이를 하나의 형태소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는 ‘왓수광’과 ‘왓쑤광’의 ‘-수-’와 ‘-쑤-’는 이형태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결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쑤-’는 된소리되기 환경에서 나타나므로 굳이 ‘-쑤-’를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한편 종전에는 ‘먹어서’(먹었어), ‘막암서’(막고 있어)로 쓰고 ‘먹--+어시--+어’, ‘막--+암시--+어’로 분석했었는데, 최근에는 ‘먹었어’, ‘막암ㅅ어’로 적고 ‘먹--+엇--+어’, ‘막--+암ㅅ--+어’로 분석하여, 진행의 선어말어미가 ‘-암시-’나 ‘-암ㅅ-’이나 하는 문제가 생겼다. 문제는 ‘막암다’(막고 있느냐)의 경우 ‘ㄹ’ 뒤에 ‘ㄷ’이 경음화하지 않는데, ‘막암ㅅ지[마잡쑤]’의 경우 ‘ㄹ’ 뒤에서 ‘ㅅ’이 경음화하지 않기 때문에 ‘막--+암ㅅ--+지’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표기의 문제도 수반되고 있다.

3.3 음운(音韻)과 발음, 표기의 문제

제주도방언 사전이라면 너무도 당연히 음운 및 발음, 표기의 문제를 중요하게 처리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오’와 ‘어’, ‘으’, 그리고 ‘요’와 ‘여’, ‘으’, ‘왜’와 ‘웨’가 노년층에서 분명하게 구분되어 발음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40대 이하는 ‘오’와 ‘으’를 구별 없이 ‘오’로 발음하고, ‘요’와 ‘으’를 구별 없이 ‘요, 여’로 발음한다.

가령 ‘돌’[石]과 ‘돌’[月], ‘곶’[藪]과 ‘갯’[邊], ‘ㄷ리’[橋]와 ‘도리’(기둥과 기둥 위에서 까래를 엮으려고 돌려 엮히는 나무)가 발음상 구별되고 의미의 변별을 가져온다면 당연히 ‘오’와 ‘으’는 구별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오망ㅎ다’(요사하고 망녕되다)와 ‘으망지다’(뚝뚝하다)와 같이 발음상 구별되고 의미의 변별을 가져온다면 당연히 ‘요’와 ‘으’는 구별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으’는 ‘으’와는 달리 의미상의 변별의 차이가 크지 않다. 곧 ‘으라이’(여러 사람)와 ‘요라이’, ‘여라이’는 발음상의 미묘한 차이가 있을지언정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외’는 표준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단모음으로 규정했으나,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제주도방언의 경우 ‘외’는 단모음으로 발음되지 않고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데, 대부분 입술을 둥글게 하면서 계기적으로 발음한다. 심지어는 ‘꽤’(깨) 등 극히 일부 어휘를 제외하고 ‘왜’도 대부분 ‘웨’로 실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웨

제주방언 사전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牛], 鐵[鐵], 왜국(倭國, 外國), 웨[오이]로 적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방언의 음운에 대한 연구는 현평효(1970, 1971), 김한곤(1980, 1987), 현우종(1986, 1987, 1992), 정승철(1988, 1995) 등이 있는데, 특히 김한곤과 현우종은 실험음성학적인 연구로 제주도방언 음운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

김한곤(1980)과 현우종(1992)에서 제주도방언의 ‘오’는 영어의 odd[ad/ɔd], doctor[dɔk-]의 발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ɔ/ɔ]와 아주 비슷하여, [a](아)나 [o](오)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음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기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표준어 ‘맷돌’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은 ‘ᄇ레’이다.

석주명(1947)에서는 ‘ᄇ레(맷돌, 맷), ᄇ레곰(맷돌질), ᄇ레덕석(맷방석), ᄇ렛돌(맷돌) / ᄇ레수기(전나무), ᄇ레감낭(감나무의 한 가지), ᄇ렛도고리(매함치)’ 등으로 적고 있다. ‘ᄇ레’와 ‘ᄇ렛도고리’의 ‘ᄇ레’가 표기상 일치하지 않고 있다.

박용후(1960)에서는 ‘ᄇ레(맷돌매), ᄇ레감(맷돌 모양의 넓적한 감), ᄇ레감낭, ᄇ레덕석·ᄇ레독석, ᄇ레수기, ᄇ렛도고리, ᄇ렛돌, ᄇ렛방석’ 등으로 적고 있다. 모두 ‘ᄇ레’로 일치하여 적고 있다.

현평효(1962)에서는 ‘ᄇ레, ᄇ레곰, ᄇ렛방석·ᄇ렛덕석·ᄇ레독석(맷방석), ᄇ렛죽(맷손), ᄇ렛장귀(맷수쇠)’ 등으로 적고 있다. 모두 ‘ᄇ레’로 일치하여 적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에서는 방언형을 ‘ᄇ레’로 적고 음성 전사형을 [kerE] (남제주, 북제주)로 적고 있다. ‘오’를 [e]로 표기한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레’를 [E]로 표기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음성부호 [E]는 [e](에)와 [ɛ](애)의 중간음이다. 곧 [e](에)와 [ɛ](애)는 [E]의 변이음이기 때문에 /e/(에)와 /ɛ/(애)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e/(에)와 /ɛ/(애)의 대립이 없는 모음에서는 /E/로 적고 있다. 문제는 이를 문자로 표기했을 때 ‘에’로 쓸 것이냐 ‘애’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이는 문자를 하나 없애고 하나를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된 표기법을 만들어 사용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5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거의 확실히 이 둘을 구분해서 발음하는데 40대 이하의 젊은층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랬을 때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작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석주명, 박용후, 현평효 등의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세대인데도 석주명과 박용후에서는 구분해서 쓰지 못했기 때문에 후세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의 자료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조사 자료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비전문가들은 대부분은 ‘애’로 쓰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굴갱이·굴게기·굴게’(호미)를 ‘굴갱이·굴개기·굴개’로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역시 젊은층에서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로 통일해서 써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설정된 어휘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문제도 사전 작업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나,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4. 결론

일정한 언어 단위를 표제어로 선정하여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그 표제어들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체계화시킨 책이 사전(辭典)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주도방언 사전도 단순히 어휘를 수집하여 정리한 어휘집 수준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사물이나 사항에 대한 언어외적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事典)이 아닌 품사·발음·용례 등 주로 언어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辭典)이어야 되기 때문에, 발음(發音)·어원(語源)·숙어(熟語)·예문·인용문·유의어(類義語)·반의어 등의 언어 정보를 제공하는 제주도방언 사전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때다.

이제 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이 제안이 한갓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아직도 혼란을 보이고 있는 <제주어 표기법>이든 <제주도방언 표기법>이든 일정한 표기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문제를 보완한 표기법을 말이다.

둘째는 사전(辭典)다운 사전(辭典)이 만들어져야 한다. 필자는 너무도 잘 안다. 만들어진 사전을 비판하기는 쉬워드 사전을 만들기는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사전다운 사전은 제주도방언을 연구하는 학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제주도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 제주도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 제주도 해양 동·식물을 연구하는 사람, 제주도방언으로 시나 소설을 쓰는 사람 등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셋째는 제주도방언으로 글이나, 시, 소설을 쓸 때는 잘 생각해서, 그리고 적어도 기존의 방언사전을 한 번만이라도 찾아서 숙고한 다음에 써주었으면 한다.

제주방언 사전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넷째는 행정당국의 재정적인 지원을 바란다. 영똥한 곳에 쓰는 재정 일부라면 가능할 것이다. 전통문화를 강조는 하면서도, 제주도사투리로 말하기 대회를 열면서도 정작 중요한 어휘집이나 사전 만들기에 등한시한다면 그 모두가 사상누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주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근보(1978), “제주도방언의 곡용에 대하여”, 『논문집』 10, 제주대.
강영봉(1981), “제주도방언의 후치사에 대하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정희(1984), “제주방언의 명사류 접미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정희(1988), 『제주방언 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김영돈(1956~57), “제주도방언의 어미 활용”, 『한글』 119~121.
김한곤(1980ㄱ), “제주방언 모음체계의 음향분석”, 『연암현평효박사회갑기념논총』.
김한곤(1980ㄴ), “An Acoustic Study of the Cheju Dialect in Korean”, 『언어』 V.
박용후(1960·1988재판), 『濟州方言研究:資料篇』, 동원사.
석주명(1947),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출판부.
성낙수(1992), 『제주도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이남덕(1982), “제주방언의 동사종결어미변화에 나타난 시상체계에 대하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이승녕(1957), “濟州島方言의 形態論의 研究”, 『東方學志』 3호.
정승철(1988),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와 관련된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승철(1995), 『제주도방언의 통시음운론』, 국어학회.
정승철(1997ㄱ), “제주방언의 특징”, 『한국어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승철(1997ㄴ), “제주도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애산학보』 20.
정영진(1983), “제주도방언의 종결어미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운택(1983), “제주도방언의 격어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방언연구회(1995), 『濟州語辭典』.

白鹿語文 第17輯(2001. 2)

- 현우종(1986), “제주도방언 ‘·’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우종(1987), “제주도방언의 ‘으’음가 고찰”, 『건국어문학』 11·12, 건국대.
현우종(1992), “제주방언 홀소리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현평효(1962·1985재판), 『濟州島方言研究:資料篇』, 정연사.
현평효(1970),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 『국문학보』 3.
현평효(1971), “제주방언의 음운”, 『교육제주』 17.
현평효·김홍식·강근보(1974), “제주도방언의 활용어미에 대한 연구”, 『논문집』 6집.
홍종림(1993),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
-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上·下』, 東京, 岩波書店.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缺’語攷』, 京城, 東都書店.